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09:30 (2026. 11. 13.(금) 석간)

“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” 김영훈 장관,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청취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11월 13일(금)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**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반도체 기업 관계자**들과 **간담회**를 개최하였다. 이날 간담회에는 **산업통상부**도 함께 참석하였다.

*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원익IPS, 동진쎄미켐, 에프에스티, 미코세라믹스, 엘오티베큠

지난 10월 23일 개최된 **규제합리화위원회**에서 **이재명 대통령**은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**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**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. **이번 간담회**는 반도체 산업의 **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애로**를 보다 **구체적으로 듣고 소통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, 최근 **기술경쟁**이 치열해지면서 **연구개발 역량 확보의 중요성**이 더욱 커지고 있다. 이러한 상황에서 **반도체 업계**는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**근로시간을 보다 유연**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.

김영훈 장관은 “**반도체 성장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회**가 되기 위해서는 **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**해야 한다”라면서 “**근로시간제도** 역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여 **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**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**고민**해야 하며, **정부**는 **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**하여 **사회적 대화**에서 **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**될 수 있도록 충분히 **지원**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정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**「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」**를 진행하고 있다. 사회적 대화에서는 **첨단산업 경쟁력 강화**와 **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**할 수 있는 **합리적 방안을 마련**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.

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 등을 **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붙임 1. 간담회 개요
2. 장관 모두발언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	송승민 (044-202-7549)
			사무관	박노완 (044-202-7618)
			주무관	권소현 (044-202-7543)
			주무관	김동환 (044-202-7982)

붙임 1 반도체 산업 간담회 개요

□ 일시: ’26.11.13.(금), 9:30~11:00

□ 장소: SWITCH22 스위치홀(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, 22층)

□ 주요 참석자

○ (정부) 노동부장관, 노동정책실장, 노동정책국장 등
산업부산업정책실장 직대(산업정책국장)

○ (협회·기업)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소속 기업* 대표 등

*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원익IPS, 동진쎄미켐, 에프에스티, 미코세라믹스, 엘오티베큠

□ 간담회 내용: 근로시간제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

□ 세부 일정(안) ※ 모두발언까지 공개

시간		진행 내용	비고
09:25~09:30	5′	■ **사전 대기**	5번룸
09:30~09:35	5′	■ **회의장 이동 및 기념 촬영**	스위치홀
09:35~09:45	10′	■ **참석자 소개** ■ **장관님 모두발언**	
09:45~10:55	70′	■ **간담회** - 근로시간제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	
10:55~11:00	5′	■ **마무리 발언** ■ **폐회**	

붙임 2 | **장관 모두발언** | *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음

□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.

○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□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.

○ **반도체 성장의 온기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닿아야 합니다.**
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부터
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까지
모두에게 따뜻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.

□ 반도체 성장이 모두의 **기회가 되기 위해**
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.

○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**지속적인 혁신**과
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**좋은 일자리**를 만들어야
한다는 점입니다.

□ 그간 업계는 **지속적인 혁신**을 위해 **집중적인 연구개발**이 필요하고, 이를 위해 **근로시간도 유연하게 운영**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.

○ **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**
구성원이 건강하게 일하고,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
방법도 업계의 큰 숙제임을 알고 있습니다.

□ 오늘 간담회는 업계가 고민하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정부가 함께 해답을 찾는 자리입니다.

○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일 것입니다.

○ 특히,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논의는 연구개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,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실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 연구개발의 성과는 건강한 노동에서 비롯되는 만큼, 우수한 인재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.

□ 현재 「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」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
○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도 이러한 사회적 대화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.

○ 정부는 오늘 업계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듣겠습니다.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.

□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어가면서, 그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연구 인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.

○ 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의견은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.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